

## 제9장 신약교회로 환원

동석기 목사는 1927년 11월 미국에 도착한 직후부터 감리교회 계통의 신학 교육기관 중에서 자신이 공부하기에 적합한 대학원 과정이 있는 학교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여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는 한 신학교를 발견 했다. 그 신학교는 그리스도인교회(Christian Church)에서 운영하는 신시내티 성서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라는 신학교육 기관으로 오하이오주(Ohio)에 있었다. 이 신학교는 현재 신시내티 크리스천 대학교(Cincinnati Christian University)로 개편되었다.

동석기 목사는 신시내티 성서신학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입학하기로 선택 결정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지만, 즉시 입학하여 공부하게 되면서부터 ‘환원 운동(restoration movement, 회복 운동)’을 최초로 접하였다. 그리고 신약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로 지상 최초로 설립된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새롭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훗날 동석기는 그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신시내티 성서신학교 캠퍼스

“내가 신시내티 성서신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게 된 것은 전혀 계획에도 없었으며,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나는 그것[신시내티 성서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한 것]이 주의 섭리라고 확실히 믿었다. 이 신학교는 우리[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가 가르치듯이 진리를 성서의 말씀 그대로 가르쳤다. 그러나 예배 때에는 우리와 다르게 악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조선에서 그리스도의 교회[基督の教會, Church of Christ]들을 세우며, 환원 운동의 지도자로 헌신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S. K. Dong, The Harvest Field, 277.]

‘환원 운동(회복 운동)’이란, 첫째, ‘성서 권위 회복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성서로 돌아가자(Back to the Bible.)'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둘째, '원형교회(원시교회) 회복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Back to the Early Church.)'라고 호소하기 때문이다. 셋째,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로의 일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신약교회는 오직 하나뿐이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의미에서 '환원 운동' 혹은 '신약교회 운동'이란, 사분오열(四分五裂)된 교회가 '교파의 주장과 교리, 교파의 신학'을 버리자는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서의 교훈과 성서의 원리대로 돌아가서 성서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인 '초대교회와 같은 그 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자는 운동이라는 말이다. 그러기에 '신약교회 운동' 즉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을 가리켜 교파 운동, 혹은 초 교파 운동이 아닌 '비교파 운동'(non-denominational movement)이라고 강조한다.

동석기 목사는 신시내티 성서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인 1928년에 오하이오주 남서부에 있는 신시내티에서 그리스도인교회의 트럼프(S. W. Trumph) 목사에게 침례를 받으므로 신약교회로 환원한 것으로 여겨진

다. 왜냐하면, 그의 영문 소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세례 문제에 대하여 짧게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BAPTIZED BY: Mr. Trumph, Cincinnati, Ohio, 1928. (1928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트럼프 목사에게 침례를 받았다.)” [영문편지, 동석기.]

그렇지만 동석기 목사의 침례 받은 시기(월, 일)와 장소에 관하여는 상세하고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는 침례를 받은 다음 조선 미(북) 감리교회 연회에 목사직의 ‘자퇴원서’ 즉 감리교회의 ‘탈퇴성명서(脫退聲明書)’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이어 그리스도인교회에 교적을 등록하므로 환원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1930년 1월 15일(수) 조선총독부에 조선 미(북) 감리교회 포교담당자 포교 폐지 계를 제출하므로 감리교회의 모든 공직을 깔끔히 정리하였다.

지금까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동석기 목사의 신시내티 성서신학교 졸업과 학위 문제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그래서 “Cincinnati Bible Seminary, M. A.(신시내티 성서신학교, 문학석사)”라고 하는 동석기의 영문 소개서를 아무런 이의(異

意) 제기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보도된 『신한민보』(1929.6.13.)의 기사와 국가 기록원에 보관된 조선총독부 관보에 수록된 자료에 있는 그의 친필(親筆) 이력서(1937.5.)에는 ‘동석기의 영문 소개서의 견해와 다른 기록이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 혼동을 주었다.

“동석기, 조독성 양 씨는 신시내티 성서신학교로부터 ‘문학사’의 학위를 받았다.” [『신한민보』(1929.6.13.)]

“소화(昭和) 사 년(1929년) 신시내티 전문학교(專門學校) ‘문학사’ 학위 수여” [총독부 관보, 동석기 이력서]

위와 같은 기록에서 동석기 목사는 신시내티 성서신학교에서 1929년 6월에 문학사(B. A.) 학위를 받은 것으로 오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시내티 성서신학교에 제출된 그의 학위논문은 문학사가 아닌 문학석사(M. A.)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동석기의 영문 편지와 당시 보도된 『신한민보』(1930.10.16.; 10.23.) 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나는 1928년 가을에 신시내티 성서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되었다. 나는 신시내티 성서신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게 된 것에 대하여 주님께 매우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다.” [S. K. Dong, The Harvest Field,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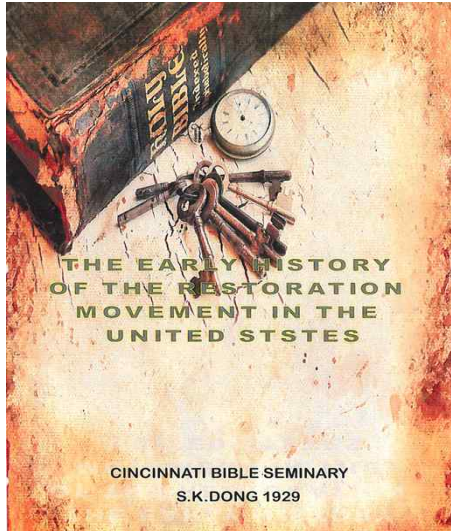
A  
Thesis  
For M. A.  
Under  
Prof. R. L. Records  
of  
Cincinnati Bible Seminary  
by  
S. K. Dong  
Sanki, Hoksei, Korea.  
1929

동석기 목사의 석사학위 논문 속지

“1927년경에 도미하였던 동석기 목사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시에서 신학 공부를 마친 후 귀국하는 길에 여러 곳의 교회를 방문하고 라성[羅城, 로스앤젤레스, Los Angeles]을 거쳐 어제(1930.10.15.) 상항[桑港,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에 도착하였다.”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10월 18일 하사마 마루 선편으로…。 1928년에 도미하여 신시내티시에서 신학을 연구하던 동석기 씨 제씨[諸氏, 한치홍, 박인선, 한유경,

김관형, 동석기, 이석원] 등 6인 동포가 귀국하였다.”



동석기 목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지

동석기 목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문학석사(M. A.) 학위논문(學位論文)은 「미국 환원 운동의 초기 역사 (*The Early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라는 제목으로, 8장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서론에서는 환원 운동이 발생하게 된 미국의 종교적인 배경사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기독교가 미국에 유입되어 정착하게 된 동기, 신앙의 자유에 따른 교파주의[教派主義, denominationalism]의 범람, 대각성 운동[大覺醒運動, The Great Awakening], 그

리고 이성주의(rationalism)와의 신학적인 연결 고리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둘째, 본론에서는 먼저 미국의 초기 환원 운동 지도자인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 바톤 스톤(Barton W. Stone), 존 스미스(John Smith), 월터 스코트(Walter Scott), 그리고 로버트 리처드슨(Robert Richardson)의 사상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환원 운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와 원인 및 운동의 본질, 목적, 그리고 성장 등에 관하여 밝히고 있는데, 논문의 본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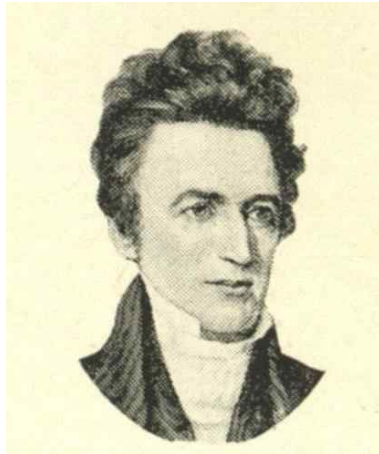


바톤 스톤(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제1장은 환원 운동의 사상가인 토마스 캠벨, 알렉산더 캠벨, 바톤 스톤의 생애와 교육, 신앙, 사상, 그리고 신학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The Early Labors of Thomas and Alexander Campbell and Barton W. Stone.”]

제2장은 바톤 스톤과 알렉산더 캠벨의 역사적인 렉싱턴 연합 운동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The Union of the Movements of Campbell and Stone.”]



알렉산더 캠벨(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제3장은 앞에서 기술한 이외의 환원 운동가인 존 스미스, 월터 스코트, 그리고 로버트 리처드슨의 생애와 사상을 소개하였다. [“The Other Early Leaders of the Movement.”].

제4장은 미국 교회들의 교리 논쟁과 무분별한 교파

적 분열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The Conditions and Causes Hat Led to the Pioneer Leaders from the Domominationalism and that Led Them to Inaugurate the Restoration Movement.”]



월터 스코트(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제5장은 환원 운동의 본질과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The Nature of the Movement.”]

제6장은 환원 운동을 일으킨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The Purpose of the Movement.”]

제7장은 환원 운동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원인을 소개하였다. [“The Rapid of the Movement.”]

제8장은 환원 운동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The Hindrances to the Restoration Movement.”]



존 스미스(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동석기 목사는 신시내티 성서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수업 시간에 교수들과 학생들과 논쟁(토론)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문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신시내티 신학교 교수들과 다른 환원운동 그룹의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들의 권유로 인해 귀국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독립선교사(an independent missionary) 신분으로 귀국하여 조선에서 환원운동을 펼치며, 신약교회들을 곳곳에 세우겠다는 다짐도 하였다.

“마침내 나는 모든 교회가 사람이 만든 신조 대신에 신약성서의 기초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확신했다. 즉

‘성서가 말하는 곳에서 우리가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곳에서는 우리도 침묵해야 한다.’라고 확신했다… 신시내티 성서신학교 교수들과 다른 환원 운동 그룹의 그리스도의 교회 친구들의 조언에 힘입어 나는 신약성서에 따라 조선에 신약교회를 세우기 위해 독립선교사로 조선에 돌아갈 결심을 했다.” [S. K. Dong, The Harvest Field.]